

귀금속 첨가에 의한 나노 (Ni, Zn)-페라이트의 CO₂ 분해 향상

김정식[†] · 안정률 · 강계명*

서울시립대학교 재료공학과

*서울산업대학교 재료공학과

Improvement of CO₂ Decomposition by Impregnating Noble Metals to Nano-size (Ni, Zn)-ferrites

Jung-Sik Kim[†], Jung-Ryul Ahn and Kae-Myung Kang*

Dept. of Materials Science & Engineering, The University of Seoul, Seoul 130-743

*Dept. of Materials Science & Engineering,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, Seoul 139-743

(2001년 9월 12일 받음, 2001년 9월 29일 최종수정본 받음)

Abstract In the present study, nano-size powders of ternary ferrites, Ni_{0.5}Zn_{0.5}Fe₂O₄, as the potential catalysts of CO₂ decomposition, were prepared by the wet processing of hydrothermal synthesis and coprecipitation method, and the catalyzing effects of impregnation of the noble metals, Pt and Pd, onto Ni_{0.5}Zn_{0.5}Fe₂O₄ for the CO₂ decomposition were investigated. XRD results of the synthesized ferrites showed a typical spinel structure of ferrite and the particle size was very small as about 6~10 nm. BET surface area of the ternary ferrites was not affected by the impregnation of Pt and Pd. The reactivity of the CO₂ decomposition to carbon was improved by the impregnation of the noble metals of Pd and Pt. The effect of Pd-impregnation on the CO₂ decomposition rate was higher than Pt-impregnation.

Key words: nano powders, (Ni, Zn)-ferrites, noble metal catalysts, CO₂ decomposition

1. 서 론

최근 급속한 산업발달과 함께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한 국제적 환경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온난화 현상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. 초기에는 CO₂를 분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Fe 촉매를 사용하여 527~627°C, H₂ 분위기에서 CO₂를 반응시킴으로써 Fe 촉매 표면에서 CO₂가 분해되어 C가 흡착되는 반응이 연구되었다.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크고 효율도 10~20% 정도로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. 1990년 Tamaura 등¹⁾에 의해 스피넬 구조의 산소가 결핍된 상태의 magnetite가 약 300°C의 낮은 온도에서 고효율의 CO₂ 분해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. 그 이후 많은 연구결과들에 의해서 스피넬 구조를 가진 산소 결핍 페라이트가 거의 100%의 CO₂ 분해효율을 갖는 우수한 촉매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즉, Me₂Fe_{3-x}O₄ [Me=2가 전이 금속: Ni, Zn, Mn, Co etc.]의 화학식을 갖고 스피넬 구조를 나타내는 페라이트 재료가 산소결핍 페라이트로 되면 300°C의 온도에서 CO₂가스를 탄소와 산소로 분해시키고 다시 H₂와 반응하게 되면 CH₄를 형성하는 기능을 지녔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CO₂ 저감촉매 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활용

촉매로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.^{2~6)}

일반 페라이트를 수소 분위기에서 약 300°C 정도로 열처리시키면 Fe³⁺ 이온이 Fe²⁺로 환원되고 산소가 표면으로 방출되면서 결정내부에 음이온 산소 빈자리가 생성되어 페라이트 재료는 산소가 결핍된 결정구조로 변한다. 이 때 CO₂ 가스가 페라이트 표면과 접촉이 되면 페라이트 결정의 산소 빈자리와 반응하여 C와 O₂로 분해되는 것이다. 여기에 다시 H₂ 가스를 반응시키게 되면 페라이트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C가 H₂와 반응하여 CH₄를 형성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촉매기능을 지닌 귀금속을 첨가시킴으로서 페라이트의 CO₂ 분해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. CO₂ 분해반응의 주된 반응기구는 물질의 산화·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페라이트에 소량의 귀금속을 첨가함으로서 CO₂ 분해의 반응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즉, 우수한 CO₂ 분해효율을 가진 3원계 Ni-Zn 페라이트를 수열합성법과 공침법으로 합성한 후에 Pt와 Pd 등의 귀금속을 소량 첨가하여 페라이트의 촉매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, CO₂ 분해특성에 대한 이들 촉매금속의 영향을 고찰하였다.

2. 실험 방법

Ni_{0.5}Zn_{0.5}Fe₂O₄의 출발원료로는 Ni(NO₃)₂ · 6H₂O, Zn(NO₃)₂ · 6H₂O, Fe(NO₃)₃ · 9H₂O를 사용하여 수열합성법

† E-mail: jskim@uoscc.uos.ac.kr

Table 1. The chemical composition, BET surface area and lattice constant of impregnated Pt and Pd on Ni_{0.5}Zn_{0.5}Fe₂O₄ prepared by hydrothermal synthesis and coprecipitation method.

Method	Noble metal	Chemical composition	BET Surface Area (cm ² /g)	Lattice constant (nm)
Hydrothermal Synthesis	None	Ni ²⁺ _{0.47} Zn ²⁺ _{0.51} Fe ³⁺ _{2.00} O ₄	113.2	0.8400
	Pt	Ni ²⁺ _{0.47} Zn ²⁺ _{0.48} Fe ³⁺ _{2.04} O ₄	111.9	0.8396
	Pd	Ni ²⁺ _{0.47} Zn ²⁺ _{0.49} Fe ³⁺ _{2.03} O ₄	110.1	0.8399
Coprecipitation Method	None	Ni ²⁺ _{0.51} Zn ²⁺ _{0.51} Fe ³⁺ _{1.94} O ₄	77.6	0.8403
	Pt	Ni ²⁺ _{0.49} Zn ²⁺ _{0.53} Fe ³⁺ _{1.98} O ₄	81.9	0.8400
	Pd	Ni ²⁺ _{0.49} Zn ²⁺ _{0.52} Fe ³⁺ _{1.99} O ₄	79.4	0.84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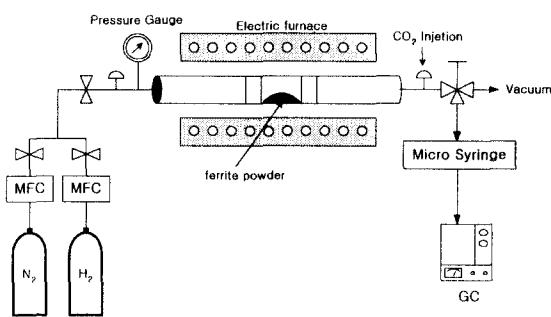


Fig. 1. Schematic diagram for CO₂ decomposition reaction.

및 공침법에 의해 각각의 Ni_{0.5}Zn_{0.5}Fe₂O₄를 제조하였다. 수 열합성법에 의한 페라이트 분말의 제조에서는 중류수 150 ml에 각 출발원료를 적정 물 비의 양으로 혼합하여 수용액을 제조한 후 이 혼합용액에 3 mol NaOH 수용액을 사용하여 교반을 하면서 pH 9가 될 때까지 적정하고 stainless steel autoclave 반응기에 넣어 170°C (7.5 MPa)에서 5 시간 동안 수열 반응을 시켰다. 수열 반응을 시킨 혼합 용액을 10000 rpm의 속도로 침전물을 원심 분리시키고, 분리된 침전물을 중류수와 에탄올로 세척한 후, 최종적으로 60°C 진공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.

공침법에 의한 페라이트 분말 제조에서는 수열합성법과 동일한 조성의 수용액을 60°C로 유지시키고 60°C의 NaOH 수용액에 첨가하면서 pH 9가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. 이 혼합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60°C, N₂ 분위기에서 1시간동안 공침 반응을 시키고 수열합성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, 건조하였다. H₂O나 OH기를 제거하기 위해 300°C, N₂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삼원계 Ni_{0.5}Zn_{0.5}Fe₂O₄분말을 얻었다. 귀금속 Pt, Pd를 첨가하기 위해서, 2.94 × 10⁻² mol의 PtCl₄, PdCl₂ 수용액 15 ml를 제조하여 0.1 mol NaOH를 첨가하면서 pH가 4.5가 될 때 까지 적정하였다. 그리고, 이들 각각의 용액에 페라이트 분말 5 g을 넣고 65°C, 0.1 mol의 NaOH를 조금씩 첨가시켜 pH 10이 되도록 적정하였다. 이 용액을 여과시켜 65°C의 진공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각각 Pt와 Pd가 약 1 wt% 첨가된 Ni_{0.5}Zn_{0.5}Fe₂O₄를 제조하였다. 제조된 분말은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(EDS)에 의해 조성분석을 하였고 x-ray diffractometer (XRD),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(TEM)을 이용하여 결정구조, 격자상수 및 입자크기를 분석하였으며 Brunauer,

Emmett and Teller (BET) surface analyzer로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.

CO₂ 분해율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페라이트 분말 3 g을 300°C에서 H₂로 환원시켜 산소 결핍 페라이트를 만든 후,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시켰다. 그리고 300°C의 진공상태 반응기에 20 ml CO₂를 주입하여 페라이트 촉매에 의한 CO₂ 분해로 발생하는 반응기 내부의 압력 변화를 이용하여 CO₂ 분해 효율을 측정하였다. Fig.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.

3. 결과 및 고찰

Table 1은 Pt, Pd를 첨가하여 합성한 페라이트의 화학적 조성과 BET 비표면적, 격자상수를 측정한 결과이다.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DS분석 결과로부터 반응 후 얻어진 페라이트 분말의 조성비는 반응 전 혼합시킨 초기 조성 (Ni_{0.5}Zn_{0.5}Fe₂O₄)과 거의 동일한 조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고, 첨가된 귀금속 Pt와 Pd의 양은 약 1~1.5 wt % 정도의 매우 작은 양이 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화학조성비의 결과는 5개의 분석결과를 평균하여 얻은 평균 값이다. BET 비표면적은 수열합성법으로 제조한 페라이트 가 약 110 m²/g의 큰 값을 나타내었고, Pt와 Pd를 첨가하기 전의 값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첨가된 금속은 분말의 표면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. XRD 분석을 행하여 얻은 회절 패턴을 이용하여 $(\cos^2\theta/\sin\theta + \cos^2\theta/\theta)$ 값과 격자상수에 대한 함수로서 나타낸 선형 Nelson-Riley 함수의 외삽법으로 계산된 격자상수도 Pt와 Pd를 첨가하기 전의 페라이트와 거의 비슷한 0.8400 nm로 일정하게 나타났다. 이는 JCPDS 카드⁷⁾에 기재되어 있는 Ni_{0.5}Zn_{0.5}Fe₂O₄의 격자상수 값(0.8399 nm)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첨가된 Pt, Pd원자가 페라이트 결정격자 내에 고용되지 않고 제 2상으로 혼합되었음을 말해준다. Fig. 2는 수열합성법 및 공침법으로 제조하여 Pt와 Pd를 첨가한 Ni_{0.5}Zn_{0.5}Fe₂O₄의 XRD 결과이다. XRD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페라이트의 결정구조가 스파넬 구조를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첨가된 귀금속의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Pt와 Pd의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.

Fig. 3은 각각 공침법과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Ni_{0.5}Zn_{0.5}Fe₂O₄ 분말에 Pd를 첨가신 후 TEM으로 관찰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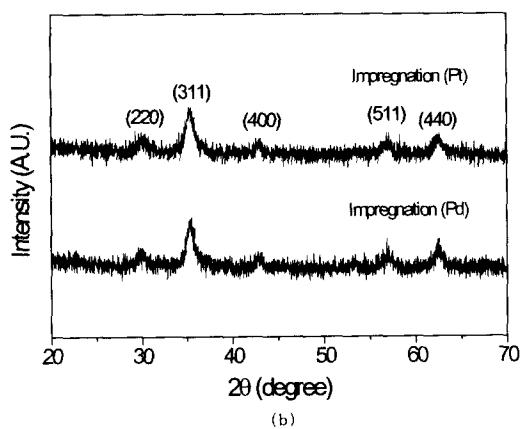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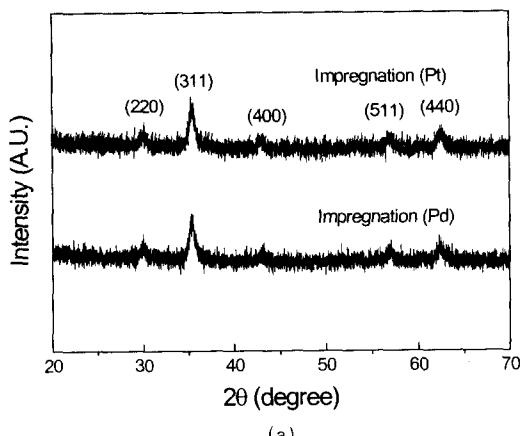


Fig. 2. XRD pattern of Pt, Pd- 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: (a) hydrothermal synthesis method, (b) coprecipitation method.

분말의 형상으로서 두 분말의 형태는 모두 구형에 가까우며 직경이 약 10nm 정도로 매우 작다. 또한, 공침법으로 합성된 분말들은 서로 풍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, 수열 합성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경우는 서로 분산된 구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. Fig. 4는 수열합성법으로 합성한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분말에 Pt와 Pd를 소량 첨가한 페라이트 분말을 각각 밀폐된 반응기 (close system)에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300°C로 가열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CO_2 분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. 세로축의 0점은 진공상태로서 -760 mmHg를 나타낸 것으로 상대적인 값이며, 가로축은 CO_2 를 주입한 후 경과된 시간을 나타낸다. 비교적 반응 초기에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반응기 내부의 CO_2 분압은 급격히 저하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된다.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t 또는 Pd를 첨가하지 않은 (a)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_2 분압이 더 감소하였고 오랜 시간동안 분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. 이것은 페라이트 촉매의 CO_2 분해 기구가 산화·환원 반응으로서 귀금속인 Pt 또는 Pd가 산화·환원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, 페라이트 표면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경우, CO_2 가 $\text{CO} + \text{Oads}$ 로 분리 흡착이 Pt와 Pd 금속 표면에서 발생되고 흡착된 Oads는 페라이트 상으로 쉽게 이동하여 산소가 빈 격자자리를 차지하게 된다. 이러한 현상을 “oxygen spillover”라고 하며 이때 분리 흡착된 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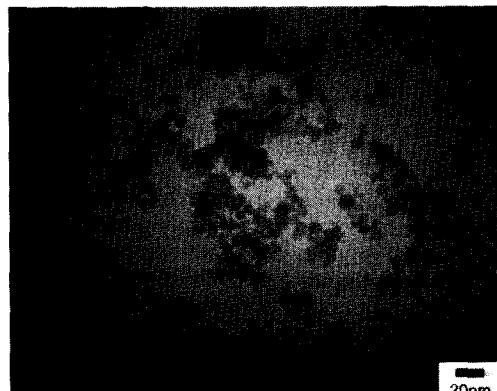


Fig. 3.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Pt and Pd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, (a) Pt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, (b) Pd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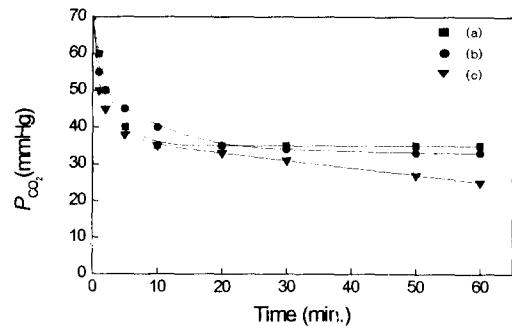


Fig. 4. Variation of the inner pressure of CO_2 in the close system reactor with noble metal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by hydrothermal synthesis, (a)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-\delta$, (b) Pt-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-\delta$ and (c) Pd-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-\delta$.

소를 “spillover oxygen”이라고 부르며, 일반 산소 원자보다 이동이 자유롭고 반응도 (reactivity)가 매우 높다.^{8~11)}

한편, 그림에서 (c) Pd를 첨가한 페라이트보다 (b) Pt를 첨가한 페라이트보다 시간에 따른 CO_2 분해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. 즉, CO_2 분해 효율은 분말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소량의 귀금속 첨가에 의해서, 또한 같은 조성의 페라이트 (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)에 첨가되는 귀금속의 종류에 따라서도 변화하며 본 실험에서는 Pd를 첨가한 페라이트가 Pt보다 더 우수하였다. Fig. 5는 공침법으로 제조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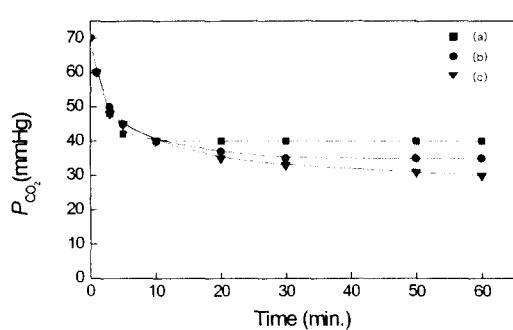


Fig. 5. Variation of the inner pressure of CO_2 in the close system reactor with noble metal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by coprecipitation method, (a)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- δ , (b) Pt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- δ and (c) Pd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- δ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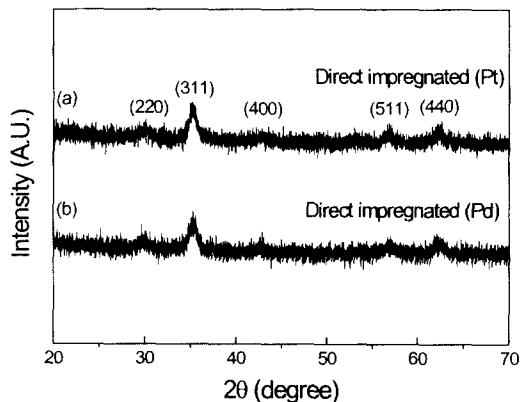


Fig. 6. XRD pattern of directly Pd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. The ferrite was synthesized by the hydrothermal synthesis.

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분말에 Pt와 Pd를 첨가하여 얻은 분말을 이용하여 밀폐된 반응용기에서 CO_2 분해반응을 통해 얻은 그라프이다. 수열합성법으로 제조한 페라이트와 같이 두 가지의 귀금속, Pt와 Pd를 첨가함으로서 CO_2 분해율이 향상되었으며, Pd 첨가에 의한 촉매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, Fig. 4의 경우(수열합성법에 의하여 합성된 페라이트)와 비교하였을 때,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CO_2 분해율이 공침법보다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. 이는 Table 1에서와 같이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페라이트 분말의 BET 비표면적이 $113.2 \text{ cm}^2/\text{g}$ 으로서 공침법으로 합성된 페라이트의 BET 비표면적($77.6 \text{ cm}^2/\text{g}$)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O_2 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.

촉매귀금속을 첨가시키는 공정방법에 따른 CO_2 분해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Pt와 Pd를 페라이트 출발원료와 함께 직접 혼합하여 수열합성법으로 페라이트 분말을 합성하였다. 즉, PtCl_4 와 PdCl_2 를 반응 전 페라이트 출발원료인, $\text{Ni}(\text{NO}_3)_2 \cdot 6\text{H}_2\text{O}$, $\text{Zn}(\text{NO}_3)_2 \cdot 6\text{H}_2\text{O}$, $\text{Fe}(\text{NO}_3)_3 \cdot 9\text{H}_2\text{O}$ 에 직접 혼합하여 Pt와 Pd이 첨가된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페라이트 분말을 합성하였다. Fig. 6은 이와 같이 합성된 페라이트 분말의 XRD 결과이다. Fig. 2의 XRD 결과(Pt와 Pd를 페라이트 분말 합성 후에 첨가함)와 비교하여 볼 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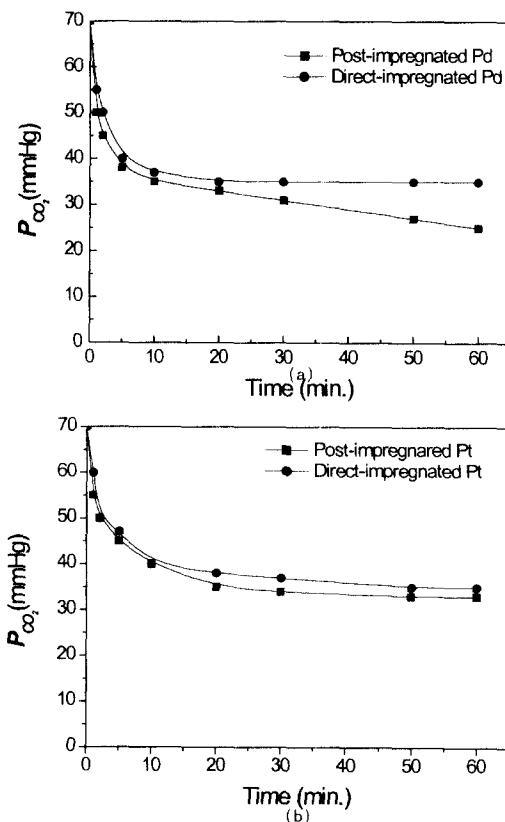


Fig. 7. Comparison of the inner pressure of CO_2 in the close system reactor between two differently 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- δ . The ferrite was synthesized by hydrothermal synthesis; (a) Pd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- δ , and (b) Pt-impregnated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- δ "Post-impregnated" means that noble metals were impregnated after the ferrite was synthesized, while "direct-impregnated" means that noble metals were impregnated by mixing with the starting solution.

스피넬상의 주 피크 폭이 더 넓게 나타나고 있으며, 이는 결정화가 다소 적게 일어났음을 말해준다. Fig. 7은 Pt와 Pd를 페라이트 출발원료에 혼합시켜서 합성된 페라이트 분말을 사용하여 이전과 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측정한 CO_2 분해특성 결과로서, Pt와 Pd를 합성된 분말에 첨가시킨 결과(Fig. 4 참조)와 비교하였다.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성된 페라이트 분말에 Pt와 Pd를 첨가시킨 것의 CO_2 분해율(post-impregnated Pd, post-impregnated Pt)이 출발원료에 혼합하여 Pt와 Pd를 첨가시킨 페라이트의 분해율(direct-impregnated Pd, direct-impregnated Pt)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. 이는 Fig. 6의 XRD 결과로부터 나타난 결정화 정도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,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.

4. 결 론

이상에서와 같이, CO_2 분해 반응은 산화·환원반응으로서 산화·환원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금속인 Pt, Pd를 미량 첨가함으로서 촉매반응을 활성화 시켜 CO_2 분해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. 수열합성법과 공침법으로 제조한 $\text{Ni}_{0.5}\text{Zn}_{0.5}\text{Fe}_2\text{O}_4$ 에 Pt와 Pd를 소량 첨가한 결과 Pt와 Pd

의 양은 약 1~1.5 wt%였으며 이러한 양은 귀금속을 첨가하기 전 페라이트의 화학조성, 결정구조 및 격자상수, BET 비표면적 등의 분말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았다. 하지만 Pt와 Pd를 첨가한 페라이트의 CO₂ 분해율이 첨가되지 않은 페라이트보다 우수하였으며, CO₂ 분해반응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. 이것은 페라이트 촉매의 CO₂ 분해 기구가 산화·환원 반응으로서 귀금속인 Pt 또는 Pd가 산화·환원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 즉, Pt와 Pd의 첨가로 인한 “oxygen spillover” 현상에 의해 CO₂ 분해반응이 활성화된다. 또한 CO₂ 분해율은 비표면적이 큰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페라이트가 더 우수하였으며, Pd을 첨가한 것이 Pt를 첨가한 페라이트에 비해 다소 우수한 촉매효과를 나타내었다. 또한, 귀금속이 합성된 페라이트 분말에 첨가된 경우가 반응 전 페라이트 출발원료에 함께 혼합하여 첨가된 경우보다 더 우수한 CO₂ 분해율을 나타내었다.

참 고 문 헌

1. Y. Tamaura and M. Tabata, *Nature (London)*, **346**, 255 (1990).
2. H. Kato, T. Kodama, M. Tsuji, Y. Tamaura and G. S. Chang, *J. Mater. Sci.*, **29**, 5689 (1994).
3. S. Komarneni, M. Tsuji, Y. Wada and T. Yamamoto, *J. Mater. Chem.*, **7**(12), 2339 (1997).
4. M. Tabata, K. Akanuma, K. Nishizawa, K. Mimori, T. Yoshida, M. Tsuji and Y. Tamaura, *J. Mater. Sci.*, **28**, 6753 (1993).
5. M. Tsuji, H. Kato, T. Kodama, G. S. Chang, N. Hasegawa and Y. Tamaura, *J. Mater. Sci.*, **29**, 6227 (1994).
6. J.-S. Kim, J.-R. Ahn, and H.-J. Ryu, *Kor. J. Mater. Res.*, **10**(3), 223 (2000).
7. JCPDS Card, Powder Diffraction File, 8-234.
8. K. Nishizawa, H. Kato, K. Mimori, T. Yoshida, N. Hasegawa, M. Tsuji and Y. Tamaura, *J. Mater. Sci.*, **29**, 768 (1994).
9. M. Tsuji, T. Yamamoto, Y. Tamaura, T. Kodama and Y. Kitayama, *Appl. Catal. A.*, **142**, 31 (1996).
10. K. Akanuma, K. Nishizawa, T. Kodama, K. Mimori, T. Yoshida, M. Tsuji and Y. Tamaura, *J. Mater. Sci.*, **28**, 860 (1993).
11. B. Delmon, *Appl. Catal. A, General* **113**, 121 (1994).